





2



3

최고, 최초, 최대를 목표로

## 다음 세상까지 계속될 주거 공간 '에버빌'

1969년 창업 이래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현진그룹의 2007년 경영화두는 '도전과 성장'이다. 국내는 물론 해외 건축 시장에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는 현진 에버빌이 초일류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한다.

에디터 | 최보윤 · 자료 제공 | (주)현진

# EVERVILL



5

(주) 현진(이하 현진)은 1969년 창업 이래로 선진 미래건설문화를 창조하고자 고객들의 신뢰와 최고의 품질시공을 바탕으로 꾸준한 발전을 거듭해왔다. 앞선 기술로 다음 세상까지 계속될 주거 공간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에버빌' 아파트를 공급하며 현진만의 브랜드 구축에 힘써왔다. 현진은 기업 신용도 평가에서 업계 최고의 신용등급을 유지하며 모든 부문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확고히 해나가고 있다.

타 업체의 벤치마킹 대상인 현진 에버빌의 성공 뒤에는 한 가지 철칙이 있다.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상황에서 평범한 아파트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진 에버빌이 분양하는 지역에는 항상 '최고' '최초' '최대' 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닌다. 이 말은 기존의 타아파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아파트와 지역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분양 지역에 대한 철저한 시장분석과 지역 소비자들이 원하는 주거 공간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뤄진다는 얘기다.

현진 에버빌은 새로운 공간개념을 만들어내기 위해 50여 명의 건축사와 설계사들이 새로운 개념의 공간을 설계하고 타 업체와 차별화된 고품격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상품개발 담당자들은 모델하우스

시공에서부터 분양까지 몇 달 동안을 현장에 머무르며 아이디어를 쏟아내기에 여념이 없다.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들이 '용인 동백 최초 히노끼 욕조 시공', '원주 최초 수영장이 있는 아파트', '청주 최초 선큰가든', '양주 최대 선큰가든', '경북 최고층 구미 옥계 현진에버빌 애플아이어', '양산 물금지구 최초 원적외선 사우나 도입' 등 '최초', '최고' 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으며 소비자들이 살고 싶어 하는 아파트, 그게 바로 현진 에버빌이다.

최근에 분양한 이천과 경주에서도 각각 이천 최초의 선큰가든과 경주 최초의 지상에 차가 없는 아파트를 공급하여 이천은 이미 분양을 100% 끝냈고, 경주도 80% 이상의 계약율을 보였다.

###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적극 활동

현진그룹을 이끌어가고 있는 전상표 회장의 경영철학은 '신용제일주의와 투명경영'이다.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 믿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신뢰를 얻으려 노력하며 날로 경쟁이 치열해져 가고 있는 건설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남보다 한발 앞서 미래를 준비하고 강한 자신감과 스피드로 선두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위해 기본원칙에 충실하자는 것이 경영마인드다.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데 진정으로 중요하고 힘이 되는 것은 돈과 명예, 지위가 아닌 진정으로 서로를 도우며 타인과 함께하는 사랑임을

알고 있기에 지난 2003년에 '백우 현진복지재단'을 설립하여 활발한 복지활동을 펼침으로써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한다. '백우 현진 복지재단'은 매년 사랑의 연탄배달 및 사랑의 집고쳐주기를 통해 전 임직원이 직접 불우이웃을 찾아가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다. 이 밖에도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후원 및 독거노인 지원 등의 다양한 복지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여름에는 강원도 평창의 수해 지역에 100여 명의 임직원을 파견하여 2박3일 동안 수해복구에 발 벗고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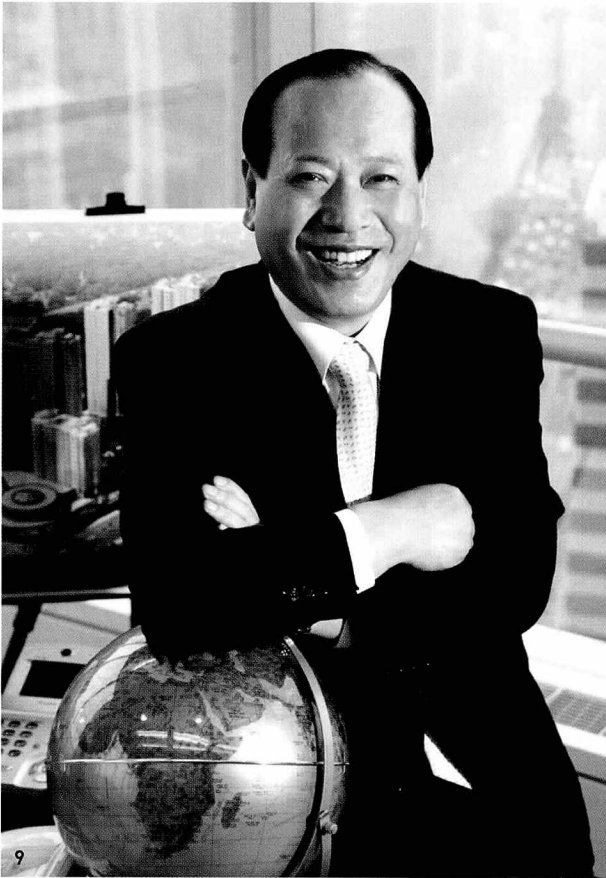
이 밖에도 강원도청을 직접 방문하여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후원금 7억 원을 김진선 강원도지사에게 직접 전달하며 국가 발전에도 기여하는 등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발전이 기업의 발전이라고 여기는 만큼 인재양성이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한다는 신념으로 직원들에게 3자녀 출산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주고 있고, 제천과 거제 지역의 현진 에버빌 계약자에게도 2자녀 이상 출산 시 1000만 원의 축하금을 3자녀 출산 시에는 1000만 원의 축하금과 7년간 매년 5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준다.

### 2007년, 현진의 '도전과 성장'의 한 해

현진그룹은 건설업계에서 초고속 성장을 보이며 건설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2007년 경영화두를 '도전과 성장'으로 삼고,







1 광주 양산 현진 에버빌 야경, 2 어등산 현진 에버빌 조감도, 3 청주 최초 선큰가든 4 현진 에버빌 로고, 5 포항 2차 현진 에버빌 야경 투시도, 6·8 광주 양산 현진 에버빌 최대 선큰가든, 7·10 향후 분양예정인 '스페이스타워' 두바이 부동산 박람회, 9 '신용제일주의와 투명경영'의 경영철학을 지닌 전상표회장.

현진그룹의 주력 핵심사업인 주택·금융·레저에서 확보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1·11 부동산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강화에 따른 국내 민간주택 시장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건설사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시행 시공과 사후관리까지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경쟁력과 브랜드 파워를 갖춘 기업만이 생존하는 구도가 예상됨에 따라 특유의 폭심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현진만의 블루오션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시장상황 속에서 현진그룹은 올해의 주요 경영전략을 고객가치 최우선의 고객만족경영 확립, 주택사업의 모든 단계를 총괄하는 종합 디벨로퍼로의 도약, 내실 있고 알찬 경영혁신을 통한 가치경영 추구, 글로벌 경쟁력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창조적 경영체제로 선진화, 본업에 충실하고 사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핵심역량 강화로 삼아 새로운 도약을 위해 도전하고 있다.

현진 에버빌은 오는 5월에 포항 장성동 2차(502가구)와 경주 황성동 2차(383가구)를 시작으로 2007년 1만여 가구의 분양 대상정에 들어간다. 지난해에도 어려운 건설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8개 지역에 8500여 가구를 분양하여 대성공을 거둔 현진 에버빌은 2007년도

에도 정부의 각종 부동산정책으로 건설 시장이 많이 악화되긴 했지만 분양 지역마다 철저한 시장분석을 통해 차별화된 상품을 공급한다면 분명히 지난해와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해보다 물량이 증가된 1만여 가구를 국내에 공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올해에는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해외에도 진출하여 현진 에버빌 브랜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현진 에버빌은 올 하반기에 두바이와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오피스빌딩과 주상복합 형태의 분양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현진은 지난 4월초 두바이에서 열린 부동산박람회에 참가하여 향후 분양 예정인 '스페이스타워'를 홍보했다. 현진은 현재 두바이, 중국, 베트남, 카자흐스탄에 지사를 설립하여 해외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현진그룹의 해외사업 부문이 국내 대비 40% 이상 차지할 수 있도록 '현진 에버빌'의 고유 브랜드로 고품격의 주거문화는 물론 오피스빌딩, 주상복합 아파트를 국가별 문화와 특성에 맞게 설계·디자인하여 성공적인 분양성적을 달성하여 현진그룹이 2006년이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제2의 창업이라는 현진 신화를 창조해 나갈 것이다. ☺